

朝鮮前期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 간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服飾文化研究  
-日本으로부터의 收入品을 중심으로-

이 자 연

신라대학교 생활환경학부 패션디자인산업학전공 부교수

**Costume Culture Study Based on the Trade Goods Between Chosun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a Japanese Envo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 Centered on the imported goods from Japan-

Ja-Yeon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2002. 3. 14 투고)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reveal an aspect of costume culture interchange in the relationship of the early Chosun Dynasty, by considering the imported goods from Japan, of the trading goods derived by the trade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rly Korea-Japan relationship in the medieval er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 good-neighbor polic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as established by a link of a barbarian ban policy to blockade the frequent intrusion by Japanese barbarians. The exchange was the form of presenting a return present in return for a tribute to the Chosun Dynasty from the Japanese envoy, which has a polycentric characteristic. Pusanpo, Naipo, and Yumpo were designated as the open ports,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Korea-Japan exchange. In trading goods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imported goods from Japan to Korea were a wide variety of items primarily such as dyes, mordant, medicines, steel, spicers, etc. In particular, Somok used as a red mordant, which were intermediate goods to Southeast Asia, was the most heavily-traded items of imported goods from Japan. It had been consumed primarily as a raw material making the costume suit of the royal family and the aristocracy. The increased import of Somok was derived from a thought of preferred red color by our people. As its inflow was increased, the costumes tended to be luxurious in early Chosun Dynasty and resulted in social issues.

This active trading from the early Chosun Dynasty caused from the communication of the Japanese envoy. In addition the study of the trading provided an opportunity that can glance at an aspect of the costume culture, though it was fractionary.

Key Words : Chosun communication facilities(조선통신사), Japanese envoy(일본사신), trading goods(교역품), imported goods(수입품), Somok(소목).

## I. 序 言

韓國과 日本은 古代부터 政治的 혹은 文化的인 交流가 있어 왔으며, 특히 朝鮮時代의 日本과의 交隣外交는 通商外交로 발전하였다. 朝鮮의 使節이 通信使라는 이름으로 日本에 파견된 것은 壬辰倭亂 전까지 약 7회, 壬辰倭亂 후 1811년까지 12회에 이르고 있는 등, 이들 朝鮮通信使를 비롯한 日本使臣의 내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이 流入되기도 하고 日本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通商外交는 兩國의 무역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의 日本使臣의 來往에 의하여 文化的 交流도 컸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韓日關係에서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간의 政治的 文化的 交流가 빈번하였던 점에 注目하여, 이들 두 나라간의 通商外交를 통하여 파생된 交易物品 중, 日本으로부터의 收入品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韓日關係에서 服飾文化 交流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通信使와 日本使臣과의 交易가 가능하게 되었던 朝鮮時代 前期의 朝日 間의 政治的 狀況을 알아보고 朝日 貿易의 性格을 把握한다. 둘째, 朝日 間 무역의 開港時期 및 場所, 그리고 日本使船과 使臣의 入國狀況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日本으로부터의 收入品과 그 特性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넷째, 赤色染料로서 당시 收入品 중 가장 去來量이 많았던 蘇木에 관하여 交易內容과 去來量을 살펴봄으로써 朝日 間의 服飾文化 交流의 한 면을 밝힌다. 研究方法으로는 각종 文獻과 朝鮮王朝實錄 등 關聯 史料 等の 記錄을 參考로 하여 考察한다.

## II. 朝鮮前期 朝日貿易의 展開

### 1. 倭寇의 出現과 朝日貿易의 性格

조선전기의 대일관계는 왜구의 문제에서부터 찾아 볼 수가 있는데, 日本으로부터의 침입은 일찍이 삼국시대 때부터 자주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삼국사기의 기록<sup>1)</sup>과 내물왕 44년(389년)에 고구려 광개토태왕 때 구원을 요청한 내용이 광개토태왕의 碑文과, 文武王의 感恩寺址에<sup>2)</sup> 기록되어 있어 당시에도 倭寇로 인한 日本과의 交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왕조 중기에는 日本의 大宰府가 매년 1회, 2척의 進奉船을 파견하는 定約이 성립되고 金州(金海)에 客館을 두어 응접하고 있었으나 점차 다수의 倭船이 무질서하게 왕래하고 海賊行爲까지 하였다<sup>3)</sup>. 高麗 末에도 고종 10년(1223) 5월에 倭寇金州의 기록이라든지 倭寇五侵始碑의 기록 등으로 보아 倭寇의 侵入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倭寇”라는 단어는 우리 나라 사람과 중국인이 日本인의 海賊行爲에 대하여 일컫는 말로 『高麗史』에 王曰 小邦亦請依上國法點戶, 又請留合浦鎮戍軍, 以備倭寇 帝曰 何必留之 其能無害於汝民乎 汝可自用汝國人 鎮戍倭寇 不足畏也<sup>4)</sup>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忠烈王 4년(1278)에 이미 倭寇가 熟語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倭寇의 侵略이 가장 심하였던 시기는 고려말인 1350년부터 조선 초기의 1408년까지로<sup>5)</sup>, 이 때는 王朝의 交替로 인하여 中央의 統治體系가 흔들리고 政治的 機能이 弱화되었기 때문에 그 廢頽로 인하여 倭寇의 侵入은 더욱 더 심하였다<sup>6)</sup>. 한편 이 시기의 日本은 南北朝의 內亂 期로 政權은 吉野와 京都로 양분되어 있었고 地方豪族도 분리되어 相爭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회는 점차로 지역적 封建體制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 幕府의 지방에 대한 統制力은 약화되었으며, 이것이

倭寇의 發生을 促進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결국 南北朝의 內亂 期에 있어서의 社會的 變革은 大規模의인 海賊 무리의 量産을 促進시킨 基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倭寇가 최초로 浸透對象으로 한 것은 高麗였고 侵略은 朝鮮時代까지 계속되었다. 朝鮮王朝는 그 초기부터 倭寇의 침략을 해결하기에 노력하여, 太祖는 卽位年(1392)에 使僧覺範을 파견하여 足利幕府와 교섭하고 倭寇의 禁制를 강력히 요구하였다<sup>7)</sup>. 즉, 朝鮮은 倭寇의 침입에 대한 禁寇政策의 일환으로 일본을 하나의 統一國家로서 인정하고 이들을 懷柔시키기 위한 懷柔政策으로서 交隣外交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交隣外交는 결국 한일간의 通商外交로 까지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반면, 조선정부는 적극적인 정책도 병행하면서 강경한 대책으로 대응하여 倭寇의 근거지를 없애고자 討伐政策을 강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옷, 양식, 물자 등을 厚賜하고<sup>8)</sup>, 歸順策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太宗 5年(1396)에는 倭船 60隻이 투항하기도 하였다<sup>9)</sup>. 그 결과 投化倭人의 수는 격증되었고 使送倭人<sup>10)</sup>이나 興利倭人이 들어와서 우리 정부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일본인의 渡來나 使送船의 파견을 규제하기 위하여 授圖書<sup>11)</sup> 書契<sup>12)</sup> 文引<sup>13)</sup> 通信符<sup>14)</sup> 告身<sup>15)</sup> 歲遣船<sup>16)</sup> 定約 등의 諸 制度를 완비하여 이들의 도래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의 대일 간의 무역은 당시 日本國王(足利將軍)은 明의 冊封을 받고 있으므로 朝鮮의 王과 대등한 관계에서 무역이 행하여졌으나, 일본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諸巨商使나 諸商使는 日本國王과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무역이 행하여졌다. 즉 對日 貿易의 性格은 日本 國王使와의 交易과 日本의 여러 豪族들을 상대로 個別的으로 이루어진 交易의 형태를 취한 多元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交易은 國王使 이하 地域의 諸侯들이 朝鮮의 王에게 물품을 獻上하면 朝鮮이 答禮로 回賜品을 보내는 형태였다. 이러한 進獻과 回賜의 방법은 초기에는 조선이 무역보다는 전통적인 交隣의 外交關係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특히 조선은 倭寇를 방지하기

위한 懷柔政策의 一環으로 日本과의 무역에 응했던 것이기 때문에 對日貿易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朝聘을 목적으로 내왕하는 사신들보다 교역에 목적을 두고 내왕하는 使臣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본격적인 무역이 전개되었고<sup>17)</sup>, 일본과 조선의 공적무역관계는 15세기말 경 국내외적 조건이 갖추어지면서<sup>18)</sup>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2. 三浦의 開港과 日本使船의 出入狀況

朝鮮 初 조정의 禁寇政策의 一環으로 취해진 懷柔策과 함께 日本 國內의 南北朝 災難의 수습과 동시에 幕府의 統治力이 強化됨에 따라, 日本과의 通交는 점차 활발해 졌다. 日本에서는 幕府의 使行人 國王使, 領主의 使行人 諸商使, 대마도의 使客과 島民, 倭商등의 來往이 빈번하고, 그 수도 날로 증가해 갔다. 이와 같이 倭人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이에 따른 軍事的 經濟的인 여러 가지 弊端으로 말미암아 浦를 한정하여 태종 7년(1407)에 당시 慶尙左右道都安撫使營의 소재지인 부산포와 乃而浦가 최초로 開港하게 되었다. 그후 鹽浦와 加背梁의 두 곳을 추가로 개항하여 4개처가 개항지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太宗 代에는 태조, 정종 때에 정식 개항의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 2개처를 열고 추가로 다시 2개처를 열어 왜인들에 대한 開放策과 厚待策을 하였지만, 왜인들의 行悖는 그치지 않았으며, 倭寇의 활동도 근절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세종 원년(1419)에는 대마도 정벌이 단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浦口는 閉鎖되었다<sup>19)</sup>. 대마도 정벌로 통교가 단절되었던 대마도는 산악이 많아 경작지가 매우 적고 도민은 항상 침탈과 상업에 의하여 생활을 영위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조선에서의 斷交로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그 고통은 극심하였다. 대마도 정벌이후 세종 원년(1419) 9월에 대마도주는 우리 예조판서에게 항복을 청하고 印信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토산물을 헌상하였으며<sup>20)</sup>, 12월에는 國王使가 通交를 종용하였다. 세종 4년(1422) 9월에는 대마도주 宗貞盛이 귀순을 고해 오자 여기에 정부는 종래의 강경책을 버리고 완화책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동년

9월에 대마도주가 토산물을 獻上하자 參贊 허조는 상계하여 그 사신을 후대하고 그에 대해 回賜하도록<sup>21)</sup> 하니 王도 이에 따르겠다고 한 사실은 有和策으로의 轉換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倭에 대하여 강경책을 취해오던 太宗이 逝去함으로써 通交往來는 급전되어 선박의 호송과 興利貿易 등을 허락해 주었는데 세종 5년(1423) 4월에는 부산포와 乃而浦를 개항하였다. 세종 8년(1426) 정월에는 대마도의 請願으로 鹽浦까지 개항하므로서<sup>22)</sup> 乃而浦 부산포 鹽浦의 三浦가 開港地로 지정되어, 여러 곳에서 使送하는 倭商들은 이 三浦를 통하여 來往하게 되었으며<sup>23)</sup> 三浦는 韓日 間 通交의 中心이 되었다. 三浦를 통하여 들어오는 倭船의 종별은 일반적으로 歲遣船이라는 歲約船, 興利船, 興販船 등의 무역선과 그밖에 사절의 임무를 띠고 入朝하는 使送船인 國王使船, 九州探題使船, 諸地方巨僑使船 등이 있다. 세종 25년(1443)에는 대마도주와 이른바 癸亥約條를 체결하여 무제한 요구하는 물자공급을 통제하고, 해마다 물자를 얻기 위하여 조선에 파견하는 歲遣船의 수를 50척으로 제한하며, 매년 조정에서 도주에게 사급하는 세사미 두는 200석으로 할 것 등,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약간의 特送船을 보낼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리고 조정은 도주에게 圖書<sup>24)</sup>를 작성하여 주고 이것을 갖지 않으면 대마도와 일본 각처의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다.

왜선의 출입상황에 관하여는 조선건국 후 왜선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부터 중종5년(1510) 삼포왜란까지 부산포를 출입한 倭船 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三浦에는 막부장군의 國王使船과 호족의 巨僑船, 九州절도사선, 對馬島船, 受職人船, 受圖書人船 등 歲遣船의 허용된 것과 조약을 맺은 各級船의 총수는 204船 내지 218船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sup>25)</sup>. 이밖에 일시적으로 내왕한 것을 합하면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成宗 11년(1479)부터 宣祖 21년(1588)까지의 약 100여 년간 朝鮮에 건너온 日本의 使節은 총 1634회에 달하며, 그 중 日本國王使의 派遣은 31차례에 이른다고 한다<sup>26)</sup>.

한편, 朝鮮에 來朝한 倭人의 數를 보면, 使行에 따른 규모의 차이나,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世宗 6년(1424)의 國王使行에 대해 보면, 송선 16척에 523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수가 도래하였으며, 巨僑使의 경우도 많은 인원이 내왕하고 있다<sup>27)</sup>. 물론 배의 규모에 따라 탑승인원도 달랐겠지만 세종21년(1439)에 입국자의 인원 규제법에 의하면, 大船은 40명, 中船은 30명, 小船은 20명으로 정원을 정한 것으로<sup>28)</sup> 보아, 한해 일본인의 도래수는 5500명 내지 6000명에 달한다<sup>29)</sup>고 한다. 이러한 추정은 世祖 元年(1455)의 한해에 日本 여러 곳의 使送倭人이 6000명이나 도래하였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sup>30)</sup>. 이러한 朝鮮前期에 입국한 막대한 인원의 日本使臣들은 대개 幕府가 보낸 使臣, 諸侯의 使臣, 구주절도사 및 대마도주의 特送使, 그리고 각 州 諸侯의 사신들이었으며, 이 중 각 州 諸侯의 使臣들은 일본의 산성주, 섭진주, 대마도를 비롯한 22개 州<sup>31)</sup>의 使臣들이었다.

### Ⅲ. 日本으로부터의 收入物品

#### 1. 收入品目과 特徵

對日 간의 貿易形態는 日本이 朝鮮의 王에게 物品을 獻上하면 朝鮮側이 答禮로 回賜品을 보낸 경우로, 朝鮮前期의 日本으로부터 온 交易物品은 전부가 進上에 해당된다. 한편 進上品을 실은 日本船이 三浦에 도착하면 격식에 따라 영접수속을 하여 使者一行을 상륙시켜 倭館에 유숙하게 하고 國王使 巨僑使의 경우는 중앙에 보고하여 出迎하게 하였다. 상례의 使船인 경우에는 매년의 渡船 數를 조사하고, 그 규정에 따라 인원수와 함께 물품을 서울로 보내게 되며,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동평관(서울의 왜관)에 체류하게 되고 使者는 書契와 進上物을 예조에 바친다. 진상품을 받은 예조와 호조에서는 堂下官들을 시켜 물품을 조사한 뒤에 시가에 준하여 상당한 대가의 回賜品을 내린다. 이 경우에는 使行이 회망하는 物資를 주는 것이 보통이며, 이 일이 끝나면 使行은 돌아가기 위해 포소로 간다. 조선의 포소에 도착하였다가 本國으로 돌아

갈 때는 포소로부터 항해기간 중의 식량까지도 급여 받았는데, 그들이 입국하면 본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은 조선의 부담이었다. 한 예로 세종 21년(1439)왕과 허조와의 대화 가운데 국가에서 사급하는 곡량이 10,000석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sup>32)</sup>.

<표 1>은 조선전기의 대일 교역품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을 각 품목별로 살펴본 것이다.

<표 1> 日本에서 朝鮮으로 온 物品<sup>33)</sup>

日本國內産物：硫黃，石硫黃，銀，銅，赤銅，白銅，黃練緯，環刀，劔，大刀，素麵，葛粉，蠟炬，濫州，扇，具箱，手籠，食籠，手箱，朱盆

동남아시아 仲介物品

染料	蘇木，黑木，深黃，緋梅木，明礬，土黃，朱紅，
媒染材	唐宋
香料	丁香，沈香，香，肉桂，香木
藥材	胡椒，良薑，訶子，川芎，桂心，檳榔，白檀，白礮，犀角，剪黃，芭豆，麒麟香，麒麟血，蘇油，肉豆蔻，蘇合油，樟腦，甘草，舊香，丁香皮，龍腦
陶磁	染壺，磁盆，
布帛	金襴
金屬	鉛，白蠟，白鉛
其他	藤，紫檀，象牙，砂糖

이상과 같이 對日 間의 交易에 있어서, 日本에서 朝鮮으로 온 主要品目은 染料,

香料를 비롯하여 藥材類, 銀 銅 硫黃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다<sup>34)</sup>. 특히 日本에서 유입되는 物資 중 染料, 胡椒 등은 당시 동남아시아 원산의 것들로 동남아시아와의 交易의 仲介商을 日本이 하였고, 이것이 조선으로 하나의 交易品目이 되어 流入되었다. 각종 染料와 胡椒 藥材 등과 같은 수입 물품은 주로 일반 서민의 필수품이 아니고 王室과 貴族들의 需用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蘇木, 朱紅, 明礬은 옷감을 물들이는 染料와 媒染材로서 王室家나 貴族階級의 禮服을 製作하는 原料가 되었으며, 胡椒는 藥用으로 또는 貴族들의 嗜好調味料로 사용되면서 점차 국내에서의 소비량도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朝鮮으로부터의 交易品은 苧布, 麻布, 紬布 등의 織物類를 비롯하여, 毛皮, 大藏

經, 書籍, 工藝品과 같은 문화적 물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sup>35)</sup>,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高官들이 선진의식과 대국의식을 가지고 日本과 교섭을 하였기 때문에 回賜品으로는 고도의 문화적 생산물을 보내려고 하였을 것<sup>36)</sup>이라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물품을 日本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交易에 있어 조선에서 日本에 求請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日本측의 要請이 대부분이었던 점<sup>37)</sup>을 고려하면 원료가 주 품목인 日本의 進上品보다 조선의 문화적 回賜品이 많았던 점은 당연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러한 交易品目에 비하여 交易量에 있어서는 記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1회의 去來量은 소량이었을 것으로 推定되는데, 太祖 2年(1393)의 暹羅斛國 張思道등이 蘇木 1000斤, 胡椒 100斤, 象牙 2매, 白礮 500斤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으며<sup>38)</sup>, <표 2>의 세종대의 蘇木 去來量에서 斷片的으로나마 交易品目과 그 數量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太宗 6年(1406)경부터 日本使臣의 來往 횟수가 이전에 비해 急增하고 있음<sup>39)</sup>을 볼 때, 이때부터 對日 間 交易品의 量도 점차 증가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2. 蘇木 收入과 朝鮮前期의 服飾文化

蘇木은 조선시대 전기 日本과의 交易品 중, 가장 많이 수입이 된 물품으로, 日本국내 생산물이 아닌 동남아시아 중개물자의 하나이다<sup>40)</sup>.

蘇木의 원산지는 동인도, 말레이 반도로 아시아의 온대지방에 생육하고 있으며, 3세기경에 중국으로 전해졌다. 우리 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으며<sup>41)</sup>, 日本에는 飛鳥時代에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 蘇木은 蘇方木의 약칭이며, 조선시대에는 丹木이라고도 하였고, 지방에 따라 蘇芳 또는 紅木, 赤木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졌는데, 『本草綱目』에 의하면 그 생산지가 蘇枋國이어서 蘇木이라고 생략하여 불렀다고 한다<sup>42)</sup>. 蘇木의 용도는 약재로도 사용이 되었으나, 염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특히 蘇木은 황갈색이 강하고 광택이 있으며, 염색이 잘되고 화려한 紅色을 얻을 수 있는 염료로,

『林園經濟志』에는 蘇木의 木紅色이 明禁에 의하여 홍색으로 발색된다<sup>43)</sup>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蘇木이 조선시대 전기, 교역품 중 가장 그 수입량이 많았던 것은 수입한 만큼 소비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원인을 검토해 보면, 조선시대의 思想體系와 服飾觀과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대에는 하늘과 땅을 비롯한 天地萬物은 모두 陰陽의 二元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陰陽二元論의 思考와, 物理的 宇宙의 모든 存在를 다섯으로 구성하여 보려는 五行說의 思考 아래, 色彩까지도 다섯으로 규정짓고, 宇宙의 모든 概念을 赤靑黃黑白과 연결시켰다. 특히, 다섯 색 중에서도 赤色은 우리민족이 가장 많이 사용해온 색으로, 주술적 의미와 약물적 의미로 사용되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관으로 고정되었고, 우리의 의식구조와 생활을 지배하는 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赤色이란 「붉다」는 개념에 포함되는 赤紅朱色의 총칭으로, 赤色系列에는 多紅, 水紅, 銀紅, 丁紅, 番紅, 木紅, 茜紅, 茶紅, 土紅, 緋紅, 綠紅, 粉紅, 大紅, 眞紅, 緋, 朱紅, 朱上, 絳, 茜草色, 臙脂色 등이 있다. 염색한 赤色系統의 색은 염색에 사용한 染材, 染色 回數, 染色 方法 등에 따라 色名이 다르게 命名되는데, 한 번 염색하면 緋, 紅, 두 번 염색하면 禎 또는 茜赤, 세 번하면 훈 또는 絳이라 하였으며, 네 번하면 朱가 된다<sup>44)</sup>.

이러한 赤色이 조선시대의 복식에 사용이 된 경우를 살펴보면, 王室家를 비롯한 일반 관료들의 관복에 주로 사용되었다. 『練藜室記述』에 의하면 太宗 2년에 명나라 建文皇帝로부터 纁繪裳, 纁繪蔽膝 등의 冕服과 服飾品의 賜與에 의하여 왕실에서 많은 紅色系統의 服飾品을 사용하게 되었으며<sup>45)</sup>, 세종 10년에는 世子의 관복을 명나라에 청하여 받아 왕세자가 七梁遠遊冠에 絳紗袍를 갖추고 纁裳, 紅緞襪, 紅緞絳紗袍 등을 착용하게 되는 등, 왕과 왕세자는 絳紗袍, 紅裳, 赤羅衣, 赤羅裳 등 赤色 의복을 많이 착용하게 되었다. 또한, 조복, 공복 및 宗廟用의 紅綃 儀仗袱, 雜裏袱 등을 만드는 데에는 반드시 赤色이 사용되었으며<sup>46)</sup>, 國婚 時에나 公主나 大君, 官吏子弟의 혼례용 복식과 각종 예복의 안감으로도 赤色이 많이 쓰였다. 이와 같이 赤色衣

服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그 염료로 蘇木이 사용되었으며<sup>47)</sup>, 王室에 紅染匠을 두어 염색을 하게 한<sup>48)</sup> 반면에, 왕실의 복식에 赤色이 많이 사용되면서 禁制도 나오게 되었다<sup>49)</sup>.

한편, 蘇木이 수입되기 이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초목염료로 홍색을 내는 紅花도 널리 사용되었다. 紅花染色은 大紅이라 하여 綿布染色에는 적합하고 무난하였으나,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았고, 高價였으며<sup>50)</sup>, 무엇보다도 진귀한 수입품인 蘇木에 대한 귀족층의 선호도 때문에 紅花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蘇木의 수입은 조선시대 전기에는 계속 증가추세에 놓여 있었다. 蘇木消費의 증가는 紅花의 염색을 雜染이라 칭하고, 蘇木의 絳色은 당시로서는 上色으로 간주하였다<sup>51)</sup>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 사용량의 증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한 蘇木의 교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蘇木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로 추정되며, 그 후 高麗時代 靖宗 7년(1041) 11월에 大蘇木을 가져왔다는 기록과 昌王代(1389)에는 琉球國의 사신으로부터 蘇木 600斤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sup>52)</sup>. 朝鮮時代 前期에도 琉球國을 비롯하여 남방의 나라와도 교역이 있어, 태조 2년(1393)에는 暹羅斛國(지금의 태국)의 사신이 蘇木 1000근을 가지고 왔다<sup>53)</sup>고 한다.

한편, 대일 간의 蘇木貿易은 태종 조에 이르러 일본으로부터의 蘇木收入이 있었는데, 태종 6년(1406) 12월에 丹州守 肥州守가 사신을 파견하여 蘇木 등을 進獻한 사실이 있었고 동 11년 2월에는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품 중에 蘇木染料가 사용된 것을 보면<sup>54)</sup>, 당시의 蘇木收入量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蘇木의 거래는 세종 조에 이르러 더욱 활발히 행하여져, 대일 蘇木收入量은 격증하였다. <표 2>는 세종 원년부터 9년까지의 일본으로부터의 蘇木去來量으로, 무역품의 수량이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世宗實錄』에 의한 것이다.

&lt;표 2&gt; 日本人의 蘇木 進上表(1418~1427)

年	進上回數	進上量(斤)	一回平均進上量(斤)
世宗 卽位年 (1418年)	3	400	133.3
世宗 元年 (1419年)	0	0	0
世宗 2年 (1420年)	3	1,200	400.0
世宗 3年 (1421年)	7	3,800	542.9
世宗 4年 (1422年)	1	300	300.0
世宗 5年 (1423年)	51	56,070	1,099.4
世宗 6年 (1424年)	7	5,050	721.4
世宗 7年 (1425年)	2	1,100	550.5
世宗 8年 (1426年)	3	1,000	333.3
世宗 9年 (1427年)	4	1,500	375.0
計	81	70,420	869.4
年 平 均	8.1	7,042	

(『世宗實錄』에 의함)

<표 2>에 의하면, 세종 2년부터 蘇木의 진상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세종 5년에는 56,070근을 수입하였으며, 1418년부터 1427년 동안의 연평균 蘇木 진상량은 7,042근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목수입이 가장 많았던 세종 5년에는 대일무역이 가장 원만히 수행되었던 시기였으며 蘇木의 수입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세종 10년(1428)이후에도 蘇木 去來는 활발하게 행하여졌는데, 이 시기에는 일본에 있어서도 蘇木이 풍부했던 시기로 遣明船에는 蘇木 106,000斤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한다<sup>55)</sup>. 또한 세종 30년(1448) 6월과 동 31년 2월에 도래한 日本使臣의 進上物 중에 각각 蘇木 1,000근이 들어 있었으며, 세조 원년(1455) 9월의 호조와 예조의 啓에 의하면, 일본사신이 가지고 온 蘇木의 가격이 正布 약 萬餘 匹이 된다고 한다<sup>56)</sup>. 세조 3년에는 거래된 蘇木이 11,000근에 달하였다고 한다<sup>57)</sup>. 한편, 세조 원년에 있어서의 使送倭人은 6,116명이었고<sup>58)</sup>, 성종 초기의 일본사신일행이 進獻한 蘇木이 400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더라도<sup>59)</sup>, 世宗代以來 日本使臣의 도래는 증가되었고 蘇木의 수입량도 계속하여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 많은 양의 蘇木이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蘇木의 가격은, 世宗 5년(1423)에 蘇木 10斤에 대하여 正布 77尺의 가격이었으나, 成宗 20年 7月(1489)에는 正布 95.37尺의 가격이었다<sup>60)</sup>. 이와 같

이 소목의 가격이 대체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은 그 수요가 증가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입된 蘇木의 국내 소비는 주로 왕실을 비롯한 관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剩餘品은 일반상인에게 불하하거나, 또는 귀족, 侍女들의 하사품으로 배분되었다<sup>61)</sup>.

한편, 蘇木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조선시대 전기에는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의복에 대한 사치의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赤色에 대한 選好觀念은 위로는 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賤隸에 이르기까지 赤色을 좋아하여, 당시 蘇木은 闕內的 紅袍를 비롯하여 朝服, 公服, 및 宗廟用的 紅綃, 儀仗裾, 雜裏裾 등의 제조에 사용이 되었다. 또한 귀족 부녀자의 치마나 紅袍와 같은 바깥 염색 뿐 아니라 안감의 염색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으며,各司吏典나 工商賤隸들도 직색의 의복을 선호하여 착용하였다. 즉, 赤色 1匹을 염색하는 비용이 1匹의 가격에 상당할 정도로 染色費가 高價임에도 불구하고 의복의 걸감과 안감에 이르기까지 赤色으로 染色을 하는 실정이었다<sup>62)</sup>. 따라서, 進上衣襟와 王室에서 所要되는 것 이외의 紅染과 紫染을 禁하고, 또 文武各品 및 士大夫子弟,各司里典 外方卿史 工商賤隸가 衣裏에 紅染하는 것을 금지하는 赤色 禁止令<sup>63)</sup>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蘇木의 필요성을 上疏한 기록<sup>64)</sup>도 있어 赤色 選好는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전기

의 이러한 服飾風潮는 물론 이 시대에 전개된 朝日 間의 교역의 결과 파생된 服飾文化 交流로 인한 현상의 한 면이라 할 수 있겠다.

#### IV. 結 言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기의 朝日關係에서 이들 두 나라간의 通商外交를 통하여 파생된 交易物品 중, 일본으로부터의 收入品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朝日關係에서의 服飾文化 交流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朝鮮前期 日本과의 交隣外交는 왜구의 잦은 침입을 봉쇄하기 위한 禁寇政策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 對日貿易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朝聘을 목적으로 내왕하는 使臣들보다 交易에 목적을 두고 來往하는 使臣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본격적인 교역이 전개되었으며, 세조 원년 한해의 使臣 數가 6000명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人員 數가 조선에 입국하였다. 교역은 주로 일본 국왕사를 비롯한 각 주 제후의 사신들과 多元的인 性格의 交易이 이루어졌으며, 日本使臣이 조선에 進上을 하면, 조선에서는 그 答禮로 回賜品을 보내는 형태의 交易이었다. 開港地로는 世宗 8년에 부산포, 乃而浦, 鹽浦의 三浦가 開港地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三浦는 한일 통교의 중심이 되었다.

朝日 間의 交易品을 보면, 朝鮮으로부터의 輸出品은 苧布, 麻布, 紬布 등의 織物類를 비롯하여, 毛皮, 火藏經, 書籍, 工藝品과 같은 문화적 물품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입된 물품은 주로 옷감에 염색을 하는 染料 및 媒染類, 藥材類, 金屬類, 香料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동남아시아 仲介品이었다. 특히 赤色 染料로 사용된 蘇木은 동남아시아 仲介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물품이었는데, 세종 원년부터 9년까지 蘇木 수입량을 보면 연평균 7,042斤에 달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蘇木의 소비는 주로 王宰 家나

귀족계급의 禮服을 제작하는 원료로 사용이 되었으며, 그 가격은 成宗 代의 경우를 보면, 蘇木 10斤에 대하여 正布 95.37尺에 이르는 고가의 품목이었다.

朝鮮前期에 있어 蘇木의 收入이 날로 增加趨勢에 있었던 것은, 赤色이 갖는 呪術的 의미와 藥物的 意味로 인하여 우리의 生活 속에서 信仰觀으로 고정되었고, 우리의 意識構造와 生活을 支配하는 색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러한 赤色選好思想으로 말미암아, 朝日 間의 蘇木交易은 朝鮮 前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品目으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蘇木의 流入이 증가하면서 朝鮮時代 前期에는 衣服에 奢侈의 傾向이 생기는 등 社會的인 問題로까지 發展하게 되었다. 이러한 朝鮮前期부터 이루어진 활발한 交易物資의 交流는, 물론 日本使臣의 來往에 의하여 생겨난 결과로서, 服飾文化 面에 있어서도 단편적이거나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三國史記』新羅本紀. 第1始祖8年, 南海王 11年, 脫解王 17年 奈解王 13年.
- 2) 『三國遺事』卷2. 文戶王 法敏條.
- 3) 中村英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上)』吉川弘文館, 1965. 20.
- 4) 『高麗史』卷28. 忠烈王 4年 7月, 戊戌條.
- 5) 이 기간동안의 왜구의 침입은 364회에 달하였다.
- 6) 稻葉岩吉 『日麗關係』『日本歷史』岩波書店, 1934. 11.
- 7) 김병하 『이조전기대일무역연구』선일인쇄사, 1969. 1.
- 8) 『太宗實錄』卷5 太宗 14年 7月 壬午條.
- 9) 『太祖實錄』卷10. 5年 12月 乙巳條.
- 10) 通信, 朝覲의 명목으로 도래한 일본인을 가리킨다.
- 11) 授圖書란 조선에 복속하기를 희망하는 일본인에 대하여 수여된 銅印으로서 使送人이 내조할 경우 書契에 찍어 증거로 삼았다.
- 12) 書契는 일본측으로부터 조선정부 앞으로 발송되는 通信文으로서, 使送貿易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어 있었다.
- 13) 文引은 路引이라고도 하며 通行確證書이다.
- 14) 通信符는 日本國王使와 巨酋使의 사칭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정부가 발급한 勘合符이다.
- 15) 告身이란 受職人의 辭令書이다.
- 16) 歲遣船은 1年間에 派遣하는 使送船 내지는 貿易船을



- 가리킨다.
- 17) 신우정 「조선전기 대일 후추무역에 관하여」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2000. 2.
  - 18) 이경식 「16세기 시장의 성립과 그 기반」『한국사연구』한국사연구회, 1987. 57.
  - 19)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부산직할시, 1989. 638.
  - 20) 『世宗實錄』卷5, 世宗 元年 9月 壬戌條.
  - 21) 『世宗實錄』卷17, 世宗4年 9月 丙寅條.
  - 22) 『世宗實錄』卷22, 世宗 8年 10月 壬申條. - 開港의 背景이 記述되어 있음.
  - 23)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앞책, 638-639.
  - 24) 圖書란 入口사증서를 말한다.
  - 25)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 交涉史研究』韓國研究院, 1964. 66-67.
  - 26) 韓文忠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27) 『太宗實錄』卷28, 太宗 14年 8月 丁未條.
  - 28) 『世宗實錄』卷85, 世宗 21年 4月 甲辰條.
  - 29) 『世宗實錄』卷85, 世宗 21年 5月 辛酉條.
  - 30) 李鉉淙, 앞책, 79-82.
  - 31) 申叔舟, 『海東諸國記』釜山大學校韓日文化研究所, 1962.
  - 32) 『世宗實錄』卷5, 世宗 元年 9月 癸亥條.
  - 33)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입된 물품에는, 일본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동남아시아 중계물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34) 小野晃嗣 『日本産業發達史の研究』至文堂, 1941. 294-294.
  - 35)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으로는 米, 糙米, 豆(黃豆), 燒酒, 淸酒, 乾柿子, 蒜, 黃栗, 淸蜜, 蜜果를 비롯한 主食物과 副食物이 있으며, 人蔘, 藥, 桂, 五味子, 大黃, 黃耆, 黃茶과 같은 藥材가 있다. 그리고, 織物類와 服飾品이 있어, 麻布, 黑麻布, 黑細麻布, 苧布, 白苧布, 白細苧布, 黑細苧布, 紅段子, 絹, 綿紬, 白細綿紬, 白紬子, 正布, 綿布, 白細綿布, 儒衣, 滿花方席, 氈冠, 靴, 靴套, 滿花 寢席, 笠, 蘭草方席, 千代熊處諸緣具靴子, 大紅羅袈裟, 草綠羅粧飾, 紫羅掛子鴉青羅粧飾, 藍羅長衫, 紫斜皮檜鞋, 白綿布幕, 陝地衣, 黑斜皮靴, 竹帽子, 紅綿子 등이 있고, 虎皮, 豹皮 등의 毛皮類와 그 외 大藏經, 大般若經과 같은 書籍類와 각종 工藝品類, 動物, 金屬이 있다.
  - 36) 金병하, 앞책, 31.
  - 37) 典客司, 『倭人求請登錄』卷2. 서울대규장각, 1992.
  - 38) 『太祖實錄』卷3, 太祖 2年 6月 庚寅(16).
  - 39) 太宗 12年(1412) 에는 왜선 17척이 興利를 구실로 경상도 부산포에 來泊하였다. 『太宗實錄』卷24, 太宗 12年 8月 辛酉條.
  - 40) 金병하, 앞책, 6.
  - 41) 삼국시대에 蘇芳典이라는 염색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이때 蘇木이 사용되었다.
  - 42) 趙景래, 『천연염료와 염색』형설출판사, 2000. 146.
  - 43) 『林園經濟志』
  - 44) 李漢의 『星湖僿設類選』5권에는 紅藍으로 물들인 것을 眞紅이라 하였고, 『常變通考』에는 紅花에 의하여 염색된 연지색을 大紅이라 하며, 염색한 濃淡에 따라 각각 연홍, 비홍, 은홍, 수홍이라 하였다.
  - 45) 李肯翊, 『練藝室記述』
  - 46) 『世宗實錄』卷 35, 9年 2月 丁丑條.
  - 47) 『世宗實錄』卷35, 9年 2月 丁丑條.
  - 48) 『經國大典』에 尙衣院과 濟用監에 각각 10명의 紅染匠을 두게 하였다.
  - 49) 世宗 28년에는 大紅으로 물들인 것은 값이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투어 奢侈하므로 1品부터 婦女에 이르기까지 裏衣 외에는 紅色 上衣의 着用을 허락하지 않았다. 燕山君 3년에는 신하가 大紅衣를 입을 수 없다고 하면서 染色의 濃淡으로 君臣의 服飾을 구별하였으며, 燕山君 4년에는 堂下官의 大紅衣 착용을 금하였고, 燕山君 10년에 이르러서는 朝官들에게 紅色에 가까운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다.
  - 50) 『星湖僿說』卷5, 上, 人事篇, 1着分の 의복을 염색하는데 드는 糶화를 얻기 위하여 경작되는 토지의 면적은 4인가족 1개월분의 食량을 산출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같을 정도였다.
  - 51) 金병하, 앞책, 107.
  - 52) 『高麗史』卷137.
  - 53) 『太祖實錄』卷3, 2年 6月 庚寅條.
  - 54) 『太宗實錄』卷21, 11年 2月 壬辰條.
  - 55) 金병하, 앞책, 119.
  - 56) 『世祖實錄』卷2, 元年 9月 戊寅條.
  - 57) 『世祖實錄』卷8, 3年 6月 壬寅條.
  - 58) 『世祖實錄』卷2, 元年 12月 己酉條.
  - 59) 『成宗實錄』卷19, 3年 6月 丁亥條.
  - 60) 1匹을 35尺으로 보았음.
  - 61) 金병하, 앞책, 122.
  - 62) 『世宗實錄』卷35, 世宗 9年 2月 丁丑條.
  - 63) 『世宗實錄』卷35, 世宗 9年 2月 丁丑條.
  - 64) 『成宗實錄』권217, 19년 6월 丁未條.